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⑥

네(如人數他寶 自無半錢分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이런 법문을 전해 들으면 음식점이나 은행, 수영장에서 근무하던 불자들은 남다른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옛 스님들은 심한 충격을 받고 발심출가(發心出家)한 계기가 된 계승들이다. 나의 노사익신 경봉사나 판사로 사형선고를 내리던 효봉선사도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 일도(一暻)는 모든 성인이 다니는 길이니 갈래길은 없다.

다음 현수장(賢首章)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로 생사에서 해탈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같지 않습니까?"

문수여,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해 범용성엔 오직 한 법뿐이니 일체에 장애함이 없는 사람들과 한 길로 생사에서 뛰어내리라(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 수없

다음 덕수장(德首章)에서는,

이제 두 번째 보광명전 법회도 광명각에서 '부처님의 발바닥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추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제10 보살문명품에 이르러 열 분의 수자(首字)보살이 최장인 문수보살과 문답으로 이어진다. 마치 수업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듯이.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각수(覺首) 보살에게 질문을 한다. "불자여, 심성은 하나인데 어찌서 갖가지 차별로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잘나고 못나 사람, 부자와 가난뱅이가 왜 생겨났습니까?"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것 그 자체의 성품도 또한 없는 것 그래서 온갖 것들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네(諸法無作用 亦無有體性 是故彼一切 各各不相知)

다음 덕수장(德首章)에서는,

마음 청정하면 온 국토 청정

수많은 부처님 법신과 마음은 하나

"불자여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인데 어찌서 여러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마치 큰 구름 우레소리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비내리지만 빗방울은 차별 없나니 불법도 또한 그러하리라 / 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못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은 그 곳에 간 적 없듯이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리라.

다음 근수장(勤首章)에서는, "불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갖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어떤 중생은 이익 얻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합니까?"

한량없는 모든 허를 끊어 없애려 하거든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옹양하게 정진하시오(勇猛常精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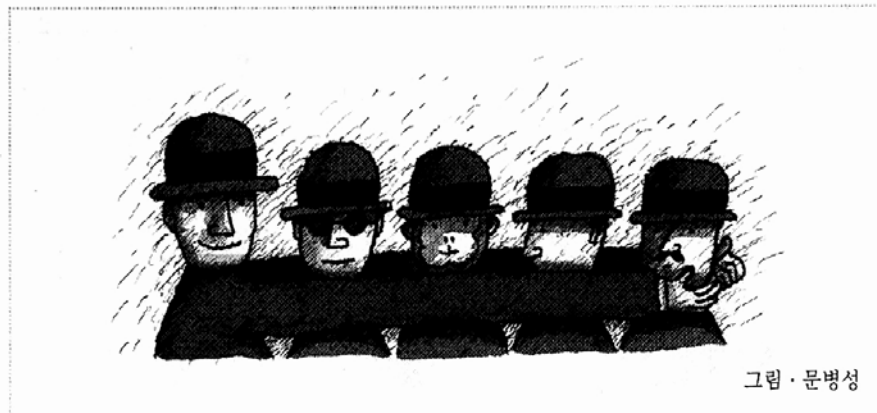
법수장(法首章)에서는, "어떤 사람 물 속에서 떠다니면서 빠질까 겁이 나서 목발과 죽듯이 / 어떤 사람 난산 음식 차려 놓고 도 스스로 굶으면서 먹지 않나니 / 어떤 사람 남의 재물을 많이 세어도 자기 몫은 한 푼 없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

는 부처님들 가지신 몸도 오직 다만 하나의 법신 뿐이며 마음도 하나이고 지혜도 하나(一心一智) 두려움이 없음과 심력(心力)도 그러해"

유명한 계승이다. 신라시대의 원효성사나 표원대덕(表員大德), 고려시대의 균여스님이 그러하였다. 여기서 일도(一暻)는 곧 <법화경>의 일불승(一佛乘) 사상을 말한다. 또 일도는 '모든 성인이 다니는 길이니 따로 갈래길이 없다'고 하였다(표원대덕의 <문의요결문답>).

오늘날 우리는 좋은 길을 놓아 두고 뒷길로 돌아다니거나 숨어 다니지는 않는지, 정치인들의 잘못은 잘도 비판하면서, 의사나 약사, 경영자들 이른바 가진 이들 모두가 자신의 호주머니만 쳐다보고는 있지 않은지, 성직이라 떠드는 종교인들도 세속적인 명예나 물질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는 불교표어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라.

■ 불교사상연구소 연구원



그림·문병성

마음 넓으면 삼라만상 포용

불교와 과학 <25>

흰색의 모순되는 색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 아닌 모든 색이다. 흰색과 검은색은 굳이 말한다면 반대 색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모순 개념은 여성이다.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만,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반대이면서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수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에서 개념의 공존 불가능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모순과 반대 사이의 간단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사 속에서 그 차이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오류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된 왜곡까지도 있다.

모순과 반대

그 차이를 혼동한데서 온 역사적 오류의 예를 들어 보자. 구 소비에트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과거 냉전의 핵심 역시 모순과 반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데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굳이 말하면 반대 관계는 됐을지언정,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냉전의 현실은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를 강요해 왔다.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혹은 공존하면 그들 각자의 정체성의 권력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대리 전쟁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간첩이 잡혀 사형 당하는 등의 역사적 오류가 일어났었다. 민주 개념과 공산 개념이 그렇게 공존할 수 없었던 모순 관계였다면 오늘날 서유럽에서 기독교민주당과 같은 보수당과 사회당이 공존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진화-창조 공존 가능한 논쟁 자비심 남도 인정하는 마음

20년 전부터 종교계, 확실히 말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서 어느 것이 옳으나 하는 심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비유적인 예를 들어보자. 치악산이 1300미터나 아니면 1700미터나 따지는 것은 분명히 모순 관계를 따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1300미터의 치악산과 1700미터의 치악산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악산이 1300미터라는 주장과 치악산이 1700미터라는 주장은 하등 부딪칠 필요 없는 공존의 주장들이다. 그렇듯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다른 범주에서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쟁하는 이유는 모순과 반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생물학자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을 수용할 수 있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과 종교로서의 창조론은 흰색의 저고리와 검은색의 바지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다른 범주에서 주장되는, 그래서 서로 공존가능한 다양한 주장 중의 한 단편일 뿐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말할 때 나는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이 지면이 불교 신문이기 때문에 더욱 망설여진다. 마치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나는 기독교와 불교 그 어디에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어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진화론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어서 진화론 여부 논쟁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론은 시간의 기원과 세계 존재의 당위성 등을 통해서 역시 너무 당연한 교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주장들

을 동일하고 유일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할 경우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 벌어질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획일화된 하나의 문화 범주만을 인정할 경우 결국 동종 교배의 문화적 유전병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그 문화를 소유한 집단의 소멸을 자초한다. 또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범주만을 온갖 것에 갖다대 휘두르는 마음의 획일성은 폭선과 위선을 낳으며,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을 낳을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마음의 다양성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며, 마음의 다양성은 남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대의 범주만이 아닌 다른 범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말한다. 자비는 남들이 속한 많은 다양한 범주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다양성의 마음으로 부터 솟아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의 완성엔 나 말고 다른 것도 나처럼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애타고 깨달음이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자비는 논리적으로만 보아도 범주논리의 차이를 확인하는 성유식론의 논리를 구현하며, 동시에 세간사에서는 서로 다른 모순된 두 개를 하나의 자리에 공존시킬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초논리이기도 하다.

■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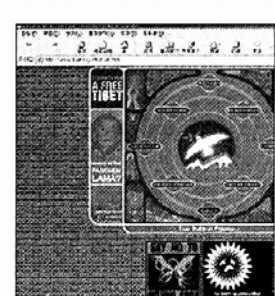
종교·인권탄압 악영향 올림픽 유치 '빨간 불'

지구촌 불교 / 베이징 오염유치 반대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의 유치에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제 사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반대운동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인권단체, 티베트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운동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과 유산종교단체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림픽 유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해 12월, 23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되면서 촉발됐다. 편지에는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2월에는



자유티베트 자유연맹 홈페이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티베트학생연맹(SFT)가 티베트와의 관계 개선 없이,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중국과 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의 티베트국민지위위원회(CSPT)가 2008년 올림픽의 베이징 개최에 반대하는 내용

티베트·파룬궁 박해 스포츠정신 어긋나 국제 인권단체 중국반대 여론몰이 나서

을 담은 엽서를 배포하고 나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미국은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건의에 대한 '불처리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는 두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표결에 따라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불처리 동의안이 찬성 22, 반대 18, 기권 12, 불참 1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떠한 결의안도 채택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이 표결이 국제 여론을 반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자유티베트학생연맹은 "중국의 티베트 탄압이 지구촌 곳곳에 알려질 수 있도록 온·오프(On·Off) 라인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을 폭로하는 보고서도 최근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티베트 정보 네트워크(TIN)의 보고서는 중국내 티베트자치구 7살 가량의 학생이 전통 불교수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고 퇴학의 위협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 수행자에 대한 고문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유엔 인권위원회의 눈을 가릴 수 있었지만, 종교 및 인권 탄압이라는 올림픽 유치의 최대 장애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n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술산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산왕기환 (3개월 50만원)
구술구보 (2개월 150만원), 율황간장 (2개월 50만원), 율황된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혜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농물로서 저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함장

☎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산식(松山食)」, 「술효소정액(松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산왕기환(治山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총복 제천시 청혜사 주지 박 법륜 합장